

자조금소식



양돈장 환경규범 점검판 제작 및 배부 결정

양돈자조금관리위, 제3차 관리위원회 개최
내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등 논의



2006년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에서 채택한 '양돈장 환경규범'을 전국 양돈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돈자조금으로 제작하는 양돈장 환경규범 점검판이 전국 양돈농가에게 배부된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소재 양돈자조금 사무국(aT센터 1101호)에서 제3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양돈협회에서 제안한 양돈장 환경규범 점검판을 제작·배부하는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원들은 전차회의 주요결과 및 추진실적, 양돈자조금 시행 추진실적 등을 보고 받고, '05년 12월부터 '06년 5월까지 조성된 24억1천9백여만원(6월 30일 현재)의 자조금 조성실적과 6월 28일 현재까지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 등 43억 9천1백여만원의 집행내역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다.

또한 관리위원들은 한국양돈조합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예산 조정(안)을 승

인하고, 2006년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시 채택된 '양돈장 환경규범'을 전국 양돈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양돈장 환경규범 점검판 제작 및 배부(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양돈장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은 내년도 양돈자조금 최우선 사업으로 결정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들은 양돈자조금 거출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방안을 협의하고 7월~9월중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 10월에 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11월에 대의원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탤런트 이연경씨 가족,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 위촉



▲ 사진 좌로부터 이연경씨 남편 현재원씨, 탤런트 이연경씨, 이연경씨 앞에 둘째 아들 현우영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김건태 위원장, 쿵아들 현준영군

탤런트 이연경씨 가족이 '국산 돼지고기 사랑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사업으로 방영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2차 캠페인광고의 주인공인 탤런트 이연경씨를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방영되는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 2차 TV광고 캠페인의 모델인 이들 가족은 평소에도 소문난 돼지고기 마니아.

김건태 관리위원장은 "평상시에 알뜰하고 살림 잘 하기로 소문난 이연경씨가 대한민국 주부의 대표 모델로서 신선하고 맛 좋은 국산 돼지고기 홍보를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탤런트 이연경씨는 앞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 2차 캠페인 방영



지난 7월 1일부터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 2차 캠페인이 본격 방영에 들어갔다.

2차 캠페인에는 탤런트 이연경씨 가족의 일상을 통해 신나는 날에는 돼지고기를 즐겨찾는다는 메시지를 경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TV와 함께 라디오에도 2차 캠페인을 집중해 광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휴가철 맛집 책자 제작 배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소비홍보가 한층 강화된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 맛집을 소개하는 '2006 웰빙 맛 여행' 책자 1만2천부 제작, 이마트와 롯



데마트 전국 매장을 통해 7월 21일부터 배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2006 웰빙 맛 여행'은 지난해에 제작한 맛집책자에 대한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제작한 것으로, 새롭게 발굴한 맛집 22개소를 포함, 총 31개소의 국산 돼지고기 맛집을 소개하는 한편 전국의 유명 관광정보와 함께 돼지고기 구입, 보관 조리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보다 판형을 축소하고 종이 무게를 가볍게 하여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게 하였다. 맛집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울러 2차 TV광고 모델을 활용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포스터도 제작해 전국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상반기 자조금 48억원 조성

양돈자조금 상반기 조성액이 도축두수 감소에도 순조롭게 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양돈자조금 총 예산액(이월금 포함)은 106억4천만원으로 상반기 현재 농가 거출금 24억3천만원, 축발기금지원금 17억2천6백만원, 예치금 이자와 이익잉여금 6억5천5백여만원 등 총 48억1천137만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관리위는 도축두수 감소로 거출금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축장 미납금 납부 독려 등 지속적인 거출 노력으로 통해 목표금액 달성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소모성질환 대책에 자조금 지원 않기로

관리위 농림부 요청에 예산 부족으로 난색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부가 돼지 소모성질환방역 대책 가운데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운영지원(안)' 1억5천만원과 '양돈장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2억원의 비용 지원을 거절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제3차 관리위원회에서 농림부가 요청한 이들 사업에 대해 필요성은 인지하나 현재 예산 부족과 자조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조금 대의원 '역할 축소' 논란

생산자-개정안 도리어 대의원 권한 줄여

양돈농가들이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가운데 일부 개정 예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의원회 역할 명시(안 제9조 제4항) 항이 신설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신설 항에 따르면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대의원회 의결사항(역할)에 대해 의무가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직권남용'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하고 있다.

특히 제16조 '관리위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 대의원회가 '위촉한자'에서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대의원들이 그동안 주장한 관리위원 직접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대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돈을 납부하고 있는 주체인 대의원들에게 직권남용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 내용이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의결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권남용' 부분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수긍하고 내부의견을 거쳐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관리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하나 현재 심각한 자돈폐사 영향으로 도축물량이 줄어 올 거출 예상액이 사업계획 106억원에도 못 미치는 102억으로 전망된다며 난색을 밝혔다. 이에 지역 컨설팅 사업은 자조금 지원 없이 진행할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으며 환경개선 실태조사는 자조금을 이용해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건태 위원장, YTN 공익캠페인 출연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김건태 위원장이 7월 20일

부터 3일간 YTN 공익캠페인에 출연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된 YTN 공익캠페인은 국민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사회 저명인사들의 공익 메시지를 담아 진행해 왔는데, 2006년도에는 '더불어 사는 우리, 함께 가는 대한민국' 이란 주제로 박홍수 농림부 장관,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출연했었다.

김건태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에서 도시와 농촌이 더 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돼지고기 우수성 문현조사 업체선정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 양돈자조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국내외 돼지고기 우수성 문현조사 연구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돼지고기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며, 연구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